

온라인 통번역교육에 대한 교수자 인식 - 통번역대학원 사례 연구* **

송연석
(한국외국어대)

1. 들어가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유행이 계속되면서 사회 각 분야는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통번역교육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최초로 정규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 특히 통번역수업은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보다 통번역실습, 교수자 및 동료 피드백과 토론 등 수업참여자 간의 활발한 다면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그나마 상호작용이 수월한 것으로 알려진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실시간 온라인 수업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

고 초반 시행 및 적응 과정에서 다소간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교수법이 정착하려면 그 교수법에 대한 연구 또한 병행되어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 및 개선해나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2020년 상황은 비대면 정규 통번역수업에 대한 예비연구조차 부재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격적으로, 그것도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정규 수업에 임하게 됐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고 비대면수업이 필요 시 언제든 대면수업을 대체할 공식적인 대안으로 인정받은 만큼,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는 더없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기존 오프라인 통번역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온라인 요소를 적용해보려는 시도나 연구들은 특히 해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져왔다(Braun and Slater 2014; Ibrahim-Gonzalez 2011; Jiménez-Crespo 2015; Ko 2006; Moser-Mercer, Class and Seeber 2005; Secară et al 2009; Tymczyńska 2009). 국내에서도 온라인 통번역교육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대부분 ICT 기술을 정규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도구로 활용하거나(오미형 2011; 이지은·허지운 2015; 홍설영 2015; Jin 2013),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두 방식을 결합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같은 비실시간 온라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이지은 2015; 최은실·김도훈 2016; Kim 2016; Lee and Huh 2016) 그나마도 수가 적어 아직 논의는 물론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지은 2016). 실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교수법이나 효과는 차치하고 아직 온라인 통번역교육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태도나 인식조차 파악이 안 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는 2020년 1학기 동안 서울 소재 한 통번역대학원 영어과에서 온라인 통번역 수업과 관련해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통번역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설문에 적극 참여하고 온라인수업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교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 선행연구

2.1 오프라인 교육 vs 온라인 교육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수업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대면방식이라 상호작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에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고 학습자마다 다른 학습 진도를 수업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온라인 교육은 그 같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높고 학습자 개개인이 학습시간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장점인 반면(Kruse 2004; Rosenberg 2001)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 거리를 둔 비대면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Arbaugh 2002). 실제로 여러 실험연구에서 상호작용은 강의만족도를 높이고 온라인 학습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확인됐다(김미량 2005; 이해영 외 2018; Hay et al. 2004). 사실 기존의 온라인 교육은 대부분 실시간이 아닌 미리 작성 혹은 녹화된 자료를 학습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사이버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문장구역 수업을 원격으로 운영한 오미형(2011)에서는 사전 녹화된 동영상과 PPT 자료가 제공되고 학생들은 이를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된다. 원격대학에서 사용하는 이 같은 온라인 수업방식은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호작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해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Ibrahim-Gonzalez 2011; Martin 2012; Stein and Graham, 2014; Wang and Zhu 2019) 통번역교육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다(양성혜 2012; 이지은 외 2015; 최은실·김도훈 2016; Blasco Mayor and Jimenez Ivars 2007; Chan 2013; Kim 2016; Olvera-Lobo et al. 2009). 다만 정규수업에의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지은 외(2015)에서는 웹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했으나 LMS 자체가 가진 기능적 한계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와 허(Lee and Huh 2018)는 비즈니스통번역교육과정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는데 대상자는 일반인으로, 정규 학위과정은 아니었다. 진실희(2013)에서는 ICT기술을 통역연습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역시

정규통역수업이 아닌 자습활동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지은과 허지운(2015)은 SNS(카카오톡)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사례를 소개했는데 역시 통역수업의 보조도구로서 활용된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이 대다수인 국내 통번역교육현장에서 이뤄진 이 같은 참신한 시도들은 모두 일정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학위과정의 정규수업에 정식으로 도입되지는 않았고 대부분 실험적인 연구로 그 수도 제한적이다. 이는 1차적으로 국내 통번역 교수자들의 인식 부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지은(2016)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인 교수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ICT 기술을 활용한 LMS를 과제제출이나 공지를 위한 제한적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었고 오프라인 교육 대비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25% 정도는 온라인 교육 및 교수법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비록 조사대상자 규모는 작지만 같은 직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타 통번역교육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조사는 상호작용이 어려운 비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상정한 것으로, 실시간 온라인 통번역수업을 직접 경험했을 경우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2.2 비실시간 교육 vs 실시간 교육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실 수업을 지칭하는 용어는 ‘오프라인 수업’이나 ‘대면수업’으로 정착된 반면 온라인 수업을 지칭하는 용어는 여전히 다양하다. 최근 사용빈도가 급증한 ‘대면수업’ 외에도 ‘e러닝(이경희 2007),’ ‘스마트 러닝(강정화 2011; 노규성 2011),’ ‘모바일 러닝(노혜란 최미나 2019),’ ‘원격교육(오미형 2011),’ ‘유비쿼터스 러닝(박성익 장선영 김미경 2008),’ ‘SNS기반 소셜러닝(성진희, 전주성 2012; 이지은, 허지운 2015)’ 등 다양한 용어가 파생됐는데, 모두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비실시간(asynchronous)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전제로 이뤄져 왔으며(양성혜 2012; 오미형 2011; 이지은 외 2015; 이지은·허지운 2015; 최은실·김도훈 2016; Kim 2016; Lee and Huh 2018), 실시간 온라인 통번역교육 연구는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수업을 스카이프(Skype)를 이용한 팀

칭 방식으로 실시한 뒤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통역능력 향상도를 연구한 이해영 외(2019) 외에는 찾기 힘들다. 그런데 ICT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온 양방향 상호작용 부재라는 문제도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 줌(Zoom), 웹엑스(Webex), 구글미트(Google Meet)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양방향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시간 교육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수업으로서 본격 실시된 것이다. 사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그 특성상 비대면이라기보다는 대면에 가깝다. 대면 상호작용과 매체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비교 연구한 콕(Kock 2005)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과적이며 매체가 부자연스러울수록, 즉 대면 상호작용과의 유사성이 낮을수록 투입해야 하는 인지적 노력이 증가하고 호호성도 커지는 반면 생리적 자극은 낮아지기 때문에 대면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에서는 여타 기술을 이용한 비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달리 실시간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들끼리도 얼굴표정 등 신체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 있지 않다는 점만 제외하면 대면 상호작용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속도나 기기의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들끼리 서로의 얼굴표정 등 신체언어를 읽고 목소리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수업의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던 상호작용이 ICT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온라인 교육도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상호작용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재분류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수업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 기존의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세 가지 유형이 서로 경쟁력을 갖고 공존하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표 1>).

그러나 오프라인 수업,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비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관심과 논의가 미흡한 단계이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경우 통역수업에 적용해 성과를 보고한 이해영 외(2019)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통번역교육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모범답안을 제공하기보다 수업참여자들이 토론과 실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여러 대안과 해법을 찾아나가는 사회구성주의적 수업방식(Kiraly 2000)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시간 상호작용이 장점인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대면통번역수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설문은 총 2회 실시했다. 1차 설문은 대면수업을 처음 경험하는 교강사들의 전반부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차 설문은 대면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반부 경험 및 인식 변화 여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1차 설문은 총 16주로 구성된 학기의 중간 지점인 8주차 중간고사 기간(2020.4.24~4.30)에, 2차 설문은 기말고사와 함께 학기가 종료되고 난 17주차(2020. 6.29~7.3)에 각각 실시했다.

설문지는 통역과목 담당 교강사와 번역과목 담당 교강사를 구분해 작성했다. 입말 중심의 대면활동인 통역과 글말 중심의 비대면활동인 번역의 수업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것이 온라인 수업 선호도나 만족도 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설문은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되 과목에 맞춰 관련 문구만 수정했다.

설문내용은 크게 수업 외부적 요소로서 기술적 측면과 내부적 요소로서 오프라인 수업 대비 수업 내용 및 운영과 온라인 수업 만족도 등으로 구성했다(<표 2>).

<표 1> 수업 유형 분류 및 비교

구분	오프라인	비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동일 장소	O	X	X
실시간	O	X	O
대면 상호작용	O	X	O

〈표 2〉 설문 구성

매체 선호도	매체 선택 이유
	사용 매체 만족도
수업 만족도	수업 준비 및 운영
	교수자-학생, 학습자 간 상호작용
	교수자로서의 수업 만족도
온라인 수업 선호도	사전 선호도
	향후 온라인 수업 선호도

1차 설문은 20문항이었고, 2차 설문은 한 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여부를 설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22문항으로 차이가 있다(부록 참조). 질문은 대부분 실시간과 비실시간 매체를 모두 포함한 ‘온라인 수업’을 주제로 하되 자유응답형 질문을 다수 포함시켜 각 매체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설문지는 구글폼을 이용했고,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 학기 초 학과에서 개설해 운영되고 있던 통역수업 담당교강사 및 번역수업담당 교강사의 단체채팅방에 각각 설문 링크를 올리고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회차별 그룹별 설문대상자 수 및 응답률은 표3과 같다. 익명 설문이라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는 알 수 없으나, 설문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대~60대이고 통역교강사 17명 중 남자는 3명, 번역교강사 17명 중 남자는 5명이다(<표 3>). 강사수가 똑같이 17명씩인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구성원은 다르다.

〈표 3〉 설문대상자 및 응답률

	통역교강사 (총 17명)	번역교강사 (총 17명)
1차 설문	13명 (76.5%)	17명 (100%)
2차 설문	12명 (70.6%)	11명 (64.7%)

1차 설문에는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모두가 적응해 학기를 마치고 난 2차 설문에서는 참여율이 하락했다. 1차 설문의 경우 학기 초 혼란 속에 처음 해보는 100% 온라인 수업에서 겪게 된 다양한 문제들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개선점을 공유 및 건의하기 위한 창구로서 설문에 참여했던 응답자가 많았던 데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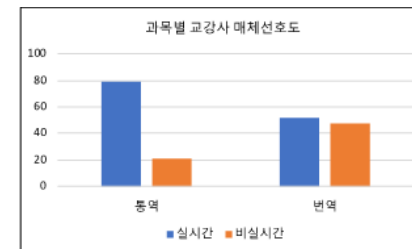
2차 설문에서는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면서 초반에 겪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학기를 무사히 마침에 따라 설문을 통해 특별히 학교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 응답률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분석 결과

4.1 매체 선호도 및 만족도

학기 초 학교 본부에서 지정한 원격수업 방식은 (1) 음성강의자료 업로드, (2) 강의동영상 유튜브 업로드, (3) 웹엑스 등 실시간 원격강의 세 가지였는데, (1)과 (2)는 비실시간 매체, (3)은 실시간 매체를 이용한 수업방식이다. 1차 설문에서 선택매체(중복응답허용)와 그 이유에 대해 통역교강사들은 실시간 매체인 웹엑스/줌(79%)을 비실시간 매체인 파일 업로드(21%)보다 선호했고, 선택 이유로 사용편의성(46.7%) >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나 평판(20%)=주변의 추천(20%) > 기타(13%)를 들었다. 이에 비해 번역교강사들의 경우 실시간인 웹엑스/줌(52%)과 비실시간인 파일업로드(48%) 간의 선택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선택 이유로는 사용편의성(66.7%) > 주변 추천(11.8%) >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나 평판(9.5%) 순으로 제시했다. 두 그룹의 이 같은 선호도 차이는 입말을 사용하는 대면소통 기반의 통역과 글말을 사용하는 비대면소통 기반의 번역 분야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과목별 교강사의 매체 선호도



그런데 1차 설문 이후 통역교강사들은 특히 동시통역 수업방식에서 한계를

느끼고 동시통역 지원기능을 갖춘 줌 비즈니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줌과 웹엑스로만 수업을 했다. 번역교강사들은 기존에 선택한 매체를 그대로 사용했다. 학기가 종료된 뒤 매체별 만족도를 묻는 2차 설문에서 통역교강사들은 한 학기 동안 사용한 실시간 매체에 대해 만족(75%) > 중립(16.7%) > 불만(8.3%)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고, 번역교강사들은 실시간 매체에 대해서는 만족(62.5%) > 중립(37.5%) > 불만(0%), 비실시간 매체에 대해서는 중립 (66.7%) > 만족 (33.3%) > 불만(0%)으로 응답해 실시간 매체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시간 매체에 만족한 이유는 예상보다 수업진행이 수월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중립이나 불만의 이유로는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화면이나 소리 끊김을 제시했다. 비실시간 매체에 대한 중립이나 불만은 실시간 소통 및 소그룹 토론의 어려움, 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두 그룹 모두 실시간 매체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비실시간 매체는 통역교강사의 경우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번역교강사는 사용했어도 중립 의견이 과반수였다(그림 2).

그림 2 과목별 교강사의 매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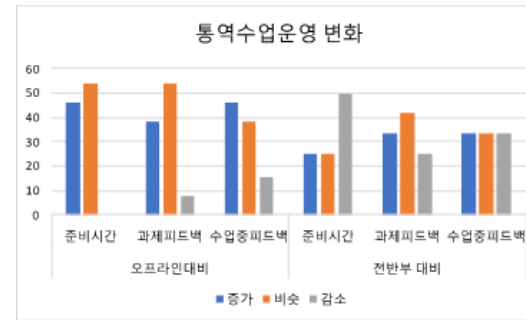
4.2 수업만족도

4.2.1 수업준비 및 운영

실시간 매체에 대한 만족도와 별개로 해당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후 교수자로서의 만족도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인 만큼 기존 오프라인 수업 대비 수업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과제에 대한 개별피드백 분량, 수업 중 교수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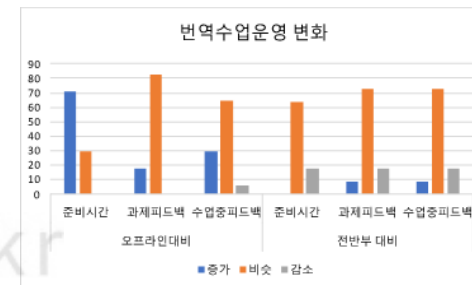
제공하는 피드백의 증감 여부 등을 조사했다. 통역교강사들은 처음에는 오프라인 수업 대비 증가했다(46.2%)와 비슷하다(29.4%)는 응답이 많았고 감소했다는 0%였으나, 학기 후반부에는 전반부보다 준비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해(0%→50%) 전반부보다는 어느 정도 적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3). 다만 후반부에서 과제 피드백과 수업 중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수업내용이나 방식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어 이것으로 적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림 3 통역교강사의 수업운영



번역교강사의 경우 학기 초 오프라인 대비 수업준비시간은 대부분 증가했으나(70.6%)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수업 중 피드백은 오프라인 수업에서와 비슷하다는 답변이 각각 82.4%, 64.7%로 가장 많았고, 2차 설문에서도 전반부와 비슷했다는 응답이 과반수(63.6%, 72.7%, 72.7%)를 차지해 수업운영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

그림 4 번역교강사의 수업운영



4.2.2 상호작용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상호작용과 관련해 오프라인 수업 대비 학생들 간의 동료 피드백 비중이 변화가 있었는지,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질문을 편하게 하는지, 교수자가 학생 개개인에 쏟을 수 있는 관심의 양이 달라졌는지, 교수자가 느끼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1차 설문에서는 오프라인에 비해 비슷하거나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차 설문에서는 전반부보다 향상된 것으로 응답해 학기 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5, 6).

그림 5 통역수업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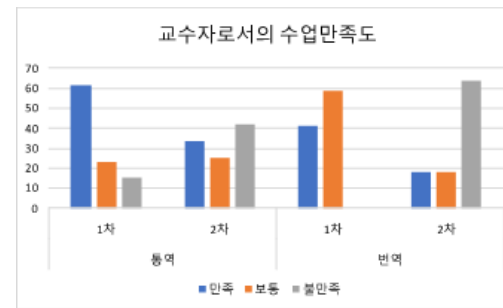
그림 6 번역수업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4.2.3 수업만족도

오프라인 수업 대비 교수자로서 느끼는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대해, 통역 교강사는 1차 설문에서는 만족(61.6%)>중립(23.1%)>불만족(15.4%)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한 학기를 마친 2차 설문에서는 불만족(41.7%)>만족(33.3%)>중립(25%)로 불만족의 비율이 높아졌다. 번역교강사는 1차 설문에서 중립(58.8%)>만족(41.2%)>불만족(0%) 순이었다가 2차 설문에서는 불만족(63.6%) > 만족=보통(18.2%)으로 마찬가지로 불만족한 비율이 높았다(그림 7). 불만족으로 응답한 통역교강사들은 환경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음소거를 한 채로 수업을 듣다보니 질문과 피드백 등 상호작용이 수월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만큼 교강사의 발언시간이 늘어나 수업준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번역교강사들은 즉각적인 의견교환과 친밀감 등 상호작용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점과 음질 등 기술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두 그룹 모두 만족이나 중립을 택한 응답자들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상호작용을 수업만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7 오프라인 수업 대비 교수자의 수업만족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가 낮은 것이 실제 수업품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2020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한 교강사 34명 중 최근 2년, 즉 2019년 1학기과 2018년 1학기에도 동일하게 강의를 했던 교강사들의 오프라인 수업 강의평가 평균값을 온라인 수업 강의평가 결과와 비교해 봤다. 1학기끼리만 비교한 이유는 2학기에는 강의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 22명이 해당하였는데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 결과 온라인이라는 변수가 강의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1168>0.05$). 물론 온라인 강의라는 점 외에 다른 변수가 완벽히 통제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교강사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온라인 수업만족도가 객관적인 온라인 수업품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4.3 온라인 수업 선호도

개강 무렵 선호했던 수업방식에 대해 통역교강사의 75%는 오프라인, 25%는 온라인, 0%는 중립이었다고 답했고 번역교강사는 63.7%가 오프라인, 18.2%가 온라인, 18%가 중립이었다고 답해 두 그룹 모두 오프라인 수업 선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학기 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오프라인을 선호했으나 한 학기 동안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경험한 뒤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통역교강사는 66.7%, 번역교강사는 45.5%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대로 온라인을 선호했다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통역 8.3%, 번역 0%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는 처음의 선호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비록 교수자로서 스스로의 수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낮더라도 실시간 매체를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온라인 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자유응답에서, 예상보다 수월하고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들 참여나 교육효과도 오프라인 수업과 비슷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다만 통역 시 얼굴표정이나 노트테이킹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번역수업 준비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표 4>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방식 중에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통역교강사들은 가장 많은 33.4%가 오프라인을 50%~100%로, 25%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50%씩 혼합하는 방식을, 16.7%는 온라인을 50~100%의 비중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100% 오프라인 혹은 100% 온라인만을 선호한 응답자는 각각 16.7%, 8.3%였

다.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하고 83.3%가 온라인 요소를 도입하길 희망한 것이다. 이에 비해 번역교강사들 중 가장 많은 55.5%는 오프라인 비중이 50~100%인 방식을, 27.3%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50%씩 혼합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18.2%는 100% 오프라인인 수업을 선택한 반면, 온라인 비중이 50% 이상 커지는 걸 희망한 교강사는 한 명도 없었다. 비대면적 활동인 번역을 가르치는 번역교강사가 통역교강사보다 오히려 오프라인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익명인 이번 설문 결과만으로 원인을 파악하거나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실시간 매체 사용 비율이 더 높았던 통역교강사들이 수업만족도도 더 높았다는 점에서 수업방식 선호도와와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 교강사가 제시한 온라인 수업의 주요 장단점

	통역수업	번역수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시간 절약 및 신속한 수업진행 - 향후 원격통역 대비 가능 - 통역실습에만 집중 가능 - 자료 공유 용이 - 마이크를 통해 듣기 때문에 더 자세한 피드백 가능 - 강의실과 달리 모든 학생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음 - 보건/건강 상의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시간 절약 및 신속한 수업진행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의성과 효율적 시간관리 - 자료 공유 용이 - 수업 중 발언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하니 마음이 편해져 더 말을 많이 함 - 보건/건강 상의 이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음질, 끊김 등의 기술적 문제 - 상호작용이 줄어 교수자 부담과 피로도 상승 - 통역 시 자세,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 전달과 노트테이킹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 -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해도 등 분위기 파악이 어려움 - 통역에 방해되는 생활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음질, 끊김 등의 기술적 문제 - 학생과의 소통 제한적 -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부족 - 학생 개개인 반응 즉시 확인하기 어려움 - 소극적 학생들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음 - 수업준비시간이 많이 걸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첫 학기 학생들은 학습방법 등에 대한 더 세심한 지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기술 지원 필요 - 온오프라인 병행 방안 고려

향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선호하는 방식(중복응답)에 대해 통역교강사는 100%가 줌/웹엑스 등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번역교강사는 90.9%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 18.2%는 녹음(화)자료를 이용하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9.1%는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병행하는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해 온라인 방식 중에서는 실시간 매체를 이용한 수업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초의 매체 선호도와 비교해보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5.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실시하는 100% 온라인 통번역교육에 대해 교강사들은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수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기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오프라인 비중이 더 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에 비해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수업 운영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며 기술적인 장애요소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단기간에 온라인 수업에 비교적 잘 적응했고, 한 학기 경험을 통해 특히 온라인으로나마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강사 모두 이동시간을 절약해 수업준비와 과제 및 자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 점과 더불어, 학생들이 상호작용 부족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보조매체를 이용해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음질이나 끊김 등의 문제로 인해 발언자의 말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수업에 집중하게 된 점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러니한 장점들이다. 반면 서버 불안 같은 기술적 문제,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음소거 상태로 수업에 임하다 보니 오프라인 수업만큼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기 힘들다는 점, 화면을 통한 비언어적 요소 전달의 한계, 친밀감 및 유대감 형성 기회 부족 등은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 해도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다만 이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메일과 카카오톡 같은 보조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화면에 문서를

띄울 때도 판서기능을 이용해 단조로움을 줄이는 한편, 전체 학생들의 얼굴을 자료 옆에 함께 띄워 서로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대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특히 학기 초반 친밀감 형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방식은 첫 시도인 만큼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프라인과의 병행 등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는 계기도 된 만큼, 앞으로 학교의 기술 지원 및 투자, 교수자 스스로의 효과적인 온라인 교수법 개발 노력 등이 이어진다면 40여 년 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국내 통번역교육도 일대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처음 시도된 100% 온라인 통번역수업에 대한 교수자들의 경험과 실시간 온라인 대면수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 통번역대학원 교강사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 간 실력 차이가 크고 수강인원도 많은 학부는 사정이 다를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의 도전과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수업에 대해 교강사와 학생들이 각각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지 비교해보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경험에 대한 인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나 연구범위와 지면 제약으로 인해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들을 모아 나가면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통번역 교수법 개발도 가능해지리라 믿으며 본고가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정화 (2011)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SNS 활용 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9(5): 265-274.
- 김미량 (2005) 「e-learning 교수자의 사용 용이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저작도구 개발 사례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2): 49-72.
- 노규성 (2011) 「스마트러닝의 개념 및 구현 조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9(2): 79-88.

- 노혜란, 최미나 (2019) 「대학생의 모바일러닝 집중도 차이에 따른 학습행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방법연구』 31(2): 231-252.
- 박성익, 장선영, 김미경 (2008) 「‘U-러닝’의 이론적 탐색과 실천적 발전과제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9(1): 149-173.
- 성진희, 전주성 (2012) 「소셜러닝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교수매체적 속성 탐색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8(3): 31-55.
- 양성혜 (2012) 「MOODLE을 이용한 한서통번역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설계」, 『스페인어문학』 62: 9-36.
- 오미형 (2011) 「문장구역 원격강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111-139.
- 이지은, 허지운, 최문선, 장애리 (2015)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통역 교수법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16(1): 117-144.
- 이지은, 허지운 (2015) 「통역교육의 보조도구로서의 SNS활용 사례 연구 - 카오그룹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 『통번역교육연구』, 13(1): 147-175.
- 이지은 (2016)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통번역 교수자들의 인식 조사 연구」, 『번역학연구』, 17(1): 81-106.
- 이해영, 박선희, 정진 (2019)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 팀칭 통역 수업에 대한 인식과 통역 능력」,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22(4): 256-274.
- 이해영, 하지혜, 정혜선 (2018) 「매체효능감과 실재감이 실시간 온라인 한국학 강자 수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어문화학』 15(3): 187-210.
- 진실희 (2013) 「통역실습현장의 제약조건과 ICT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7(2): 195-222.
- 최은실, 김도훈 (2016) 「프로젝트 번역 학습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설계」, 『통번역교육연구』 14(1): 53-72.
- 홍철영 (2015) 「온라인 통역 자습 시스템의 구성요소 탐색 - 학습자 요구분석 중심의 한 예비조사」, 『통역과 번역』 17(2): 303-338.
- Arbaugh, J. Ben (2002) ‘Managing the Online Classroom: A Study of Techn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Web-based MBA Courses’, *The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3(2): 203-223.
- Blasco Mayor Maria Jesus and Maria Amparo Jimenez Ivars (2007) ‘E-learning for Interpreting’, *Babel* 53(4): 292-302.
- Braun, Sabine and Catherine Slater (2014) ‘Populating a 3D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for Interpreting Students with Bilingual Dialogues to Support Situated Learning in an Institutional Contex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3): 469-85.
- Chan, C. (2013) ‘From Self-Interpreting to Real Interpreting: A New Web-Based Exercise to Launch Effective Interpreting Training’,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1(3): 358-377.
- Hay, Amanda, Myra Hodgkinson, James W. Peltier, and William A. Drago (2004) ‘Interaction and Virtual Learning’, *Strategic Change* 13(4): 193-204.
- Ibrahim-Gonzalez, Noraini (2011) ‘E-learning in Interpreting Didactics: Students’ Attitudes and Learning Patterns, and Instructor’s Challenge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6: 224-241.
- Jiménez-Crespo, Miguel A. (2015) ‘The Internet in Translation Education: Two Decades Late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10 (1): 33-57.
- Kim, Dohun (2017) ‘Flipped Interpreting Classroom: Flipping Approaches, Student Perceptions and Design Consideration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1): 38-55.
- Kiraly, Donald (2000)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Empowerment from Theory to Practice*. Manchester: St.Jerome Publishing.
- Ko, Leong (2006) ‘Teaching Interpreting by Distance Mode’, *Interpreting* 8(1): 67-96.
- Kock, Ned (2005) ‘Media Richness or Media Naturalness? The Evolution of Our Biological Communication Apparatus and Its Influence on Our Behavior toward E-communication Tools’,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48(2): 117-130.
- Kruse, Kevin (2004)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E-learning.’ Available at http://www.corebiztechnology.com/software_article_elearning_d.htm.

- Lee, Jieun and Jiun Huh (2018) ‘Why Not Go Online?: A Case Study of Blended Mode Busines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ertificate Program’,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4): 444-466.
- Martin, Fred G. (2012) ‘Will Massive Open Online Courses Change How We Teach?’, *Communications of the ACM* 55(8), 26-28.
- Moser-Mercer, Barbara (2005) ‘Remote Interpreting: Issues of Multi-sensory Integration into Multilingual Task’, *Meta* 50(2): 727-38.
- Moser-Mercer, Barbara, Barbara Class and Kilian Seeber (2005) ‘Leveraging Virtual Learning Environments for Training Interpreter Trainers’, *Meta* 50(4).
- Olvera-Lobo, Maria Dolores, Bryan Robinson, Ricardo Muñoz-Martín, Eva Muñoz-Raya, Miguel Murillo-Melero, Enrique Quero-Gervilla, Maria Rosa Castro-Prieto, and Tomas Conde-Ruano (2009) ‘Teleworking and Collaborative Work Environments in Translation Training’, *Babel* 55(2): 165-180.
- Rosenberg, Marc Jeffrey (2001) *E-learning, Strategies for Delivering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New York: McGraw-Hill.
- Secară, Alina, Pascaline Merten, and Yamile Ramirez (2009) ‘What’s in Your Blend?: Creating Resources for Translator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3(2): 275-294.
- Stein, Jared and Charles Graham (2014) *Essentials for Blended Learning*. New York & London: Routledge.
- Tymczyńska, Maria (2009) ‘Integrating In-Class and Online Learning Activities in a Healthcare Interpreting Course Using Moodle’,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2: 148-164.
- Wang, Kai and Chang Zhu (2019) ‘MOOC-based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Students’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Learning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6: 33.

부록

* 교강사용 설문지 (1차, 학기 중반)

1. 다음 중 현재 번역수업에 사용 중인 매체를 모두 골라주세요
 - PPT강의 (PPT자료 +음성)
 - PPT + 얼굴 + 음성
 - 유튜브 강의
 - Webex
 - Zoom
 - Google Hangout
 기타:
2. 사용 매체를 선택하신 이유 (사용 편의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나 평판, 주변의 추천, 기타:)
 - 3-1. 매체를 중간에 바꾸신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 3-2. (바꾸신 분만) 바꾸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현재 온라인 수업 운영은 학기 초반에 비해 수월해졌다.
5. 수업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늘었다.
6. 과제에 대해 해주시는 개별피드백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늘었다.
7.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피드백 비중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늘었다.
8. 학생들끼리의 수업중 피드백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늘었다.
9. 한 번에 내주시는 과제분량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늘었다.
10.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을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
11.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12.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높다고 느껴진다.
13. 학생 개개인에게 기울일 수 있는 관심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늘어난 것 같다.
14.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더 경직된 느낌이다.
15. 교수자로서 느끼시는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낮다.

1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온라인 수업의 주된 단점은 무엇인가요?
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온라인 수업의 주된 장점은 무엇인가요?
18. 만약 번역수업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선택하실 수 있다면?
19. 18처럼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 기타 하고 싶으신 말씀 기탄없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교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온라인 수업에서 느끼신 점,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나 질문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 교강사용 설문지 (2차, 학기말)

1. 이번 학기 사용매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5)
2. 사용하신 매체와 위1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이번 학기 후반부(1차 설문 이후) 온라인 수업 운영은 전반부와 비교해 수월했다. (1매우 그렇다-5전혀 그렇지 않다)
4. 후반부 온라인 수업 준비 소요시간은 전반부와 비교해 늘었다.
5. 후반부 과제에 대한 개별피드백은 전반부와 비교해 늘었다.
6. 후반부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피드백 비중은 전반부와 비교해 늘었다.
7. 후반부 학생들 간의 수업 중 피드백은 전반부와 비교해 늘었다.
8. 후반부 학생들이 선생님께 전반부와 비교해 더 편하게 질문하는 것 같았다.
9. 후반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는 전반부와 비교해 더 높았다.
10. 후반부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는 전반부와 비교해 더 높았다.
11. 후반부 학생 개개인에게 기울일 수 있는 관심은 전반부와 비교해 더 많았다.
12. 후반부 수업 분위기는 전반부와 비교해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13. 온라인 수업을 한 학기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자로서 느끼시는 온라인 통역수업의 만족도는 대면수업에 비해 만족스럽다.
14. 위 13처럼 느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5. 학기 시작 전 온라인 수업보다 대면수업을 선호하셨습니까?
16. 한 학기 수업을 해보신 뒤 온라인 통역수업에 대한 생각(장단점, 선호도 등)은 달라지셨습니까?
17. 위 16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18. 온라인 통역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부터 순서대로 열거한다면?
 - (1) 교수자의 수업 중 실시간 피드백
 - (2) 교수자의 수업시간 외 피드백 (문자/음성파일, 메일/카톡 등)
 - (3) 수업 중 토론 및 학우들 간 피드백
 - (4) 교수자의 강의
 - (5) 학생의 통역과제 및 리서치
 - (6) 시스템 안정 등 기술적 지원
 - (7) 기타:
19. 만약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통역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100%오프라인 --- 100%온라인)
20. 만약 향후에도 온라인 통역수업을 하게 된다면 선호하시는 방식은
 - 녹음(화)자료를 이용해 자습하는 온라인
 - webex/zoom 등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 기타:
21. 만약 향후에도 온라인 통역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이 고려 혹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기타 하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Abstract]

T&I Trainers' Perceptions on Online T&I Training: A Survey-based Study

Song, Yonsu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unprecedented challenges to T&I training with all regular T&I classes moving online.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T&I trainers regarding the nation's first-ever synchronous online T&I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the study examines how the trainers felt about their online classes offered real time via video-conferencing platforms such as Zoom and WebEx. The survey focuses on their preferred types of ICT resources, their perceptions about and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the online classes they provide, and their preferences for modes of teaching (online, offline, or hybrid). The study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prefer synchronous online teaching via video-conferencing platforms over traditional media such as PPT files and voice recordings and that their choice of teaching mode is a hybrid mode which allows real-life,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nline teaching identified by the trainers, as well a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 ▶ Key Words: synchronous online T&I training, face-to-face classes, online interaction, T&I trainers' perspectives, real-time online classes
- ▶ 주제어: 실시간 온라인 통번역교육, 대면수업, 온라인 상호작용, 통번역교수자 인식, 실시간 온라인 수업

송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yonsuk@gmail.com

관심분야: 번역교육, 제도번역,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20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20년 9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8일